



# 環境庁長 貴下

朴 昌 根

(本会고문·環境教育會 회장)

박판계 廳長님,

그동안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世上事에 끼워진 環境 되어가는 일을 의논드리고 좋은 말씀들어야 함에도, 선듯 나서지 못하는 주제라,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때에 없이 펜을 잡아 글을 올리는 소이, 사람이 어줍지 않아, 그리하는 것이라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廳長님께서는 정말 많은 업적을 이나라의 環境界에 심으셨습니다. 歷代 그 어느 청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짧은 시간내에 과감하게, 또 실질적으로 이룩하셨습니다.

말하자면, 廳長님께서는 安住, 君臨하는 자세가 아닌, 몸소 뛰어 실천해 보여주시는 그런 環境行政의 참 지휘봉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環境人들은 더 없는 용기로 열심히 環境을 保護하는 일에 희생을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廳長님께서 이나라의 環境言論社 대표들을 만

나, 간담을 나누셨습니다.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各界 環境人들을 자주 만나서, 官民의 협조하고 노력하는 環境保護의 길을 찾으셔야, 이나라의 環境이 더 맑게, 더 푸르게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廳長님께서 “하느님과 양심에 비추어, 한점의 부끄럼 없이 소신껏 환경행정을 펼친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 든든했고 이루 형언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廳長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셔야 할 일은 청장님의 安易나 富의 영광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남겨두는 그런 명예일 것입니다.

특히, 어느 일반 행정과는 달리, 환경보호라는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는 희생적인 일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이란, 市井의 그런 雜多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在任 기간중에 정말 한점 부끄럼 없이 이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과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俗談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측하건데, 現世의 우리네가 살다, 떠난 후의 먼 훗날의 환경은 분명히 지금보다 살기에 더 나쁜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네 후손들이 정말 누구를 원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당장 눈앞의 편리함만 보고, 아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만을 보고 天方地軸으로 汚染을 일으킨 汚染者를 원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汚染者도 밋지만, 더 밋쌀스러운 것은 그런 汚染者를 다스려 보겠다고.....汚染을 막겠다고 나선 우리들 環境人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汚染의 원인자보다, 汚染의 대책자가 더 많이 욕을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現世에 돈도 명예도 되지 않는 일을 위해 희생하다가 來世에서도 욕을 듣는데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環境人들은 다른 分野의 전문가보다 더 열심히, 더 과감히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환경을 行政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의 경우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운데, 청장님 在任 기간중에 크고 작은 환경보호 行政의 일중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 보셨으면 하는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環境廳의 「部」 승격이야 廳長님의 손으로 결재하는 것이 아니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바람만을 꼭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로비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이번 '88올림픽이 끝나면 「體育部」를 흡수 통합해, 「環境部」로 개편할 수 있도록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붙들고 늘어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環境人들이 연명으로 서명해 탄원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정말 보통사람 시대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環境廳이 「部」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저기 주지시켜 주십시오.

청장님의 在任 기간중에, 「廳」이 「部」로 승격된다면, 그 이야기 말고, 歷史에 기리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정말 環境保護를 효과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環境人 그중에서도 환경기술사를 포함한 1~2급 환경관리인들에게 司法경찰권의 감시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물론, 司法경찰권이 없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汚染이 多樣化, 加速化되는 세상에서 진정, 고발, 결재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汚染은 요상하게 둔갑하여 汚染 인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라는 도무지 신명나지 않는 이 찬밥 푸대접 신세에 힘 넣어 주는 뜻에서라도 환경 기술사, 관리인에게는 실질적인 汚染防止, 對策을 위한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환경보호에 이익이 되오니, 환경감시 司法 경찰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자연보호의 업무와 환경보호업무의 二元化를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一元化 되도록 타협해 주십시오.

세상, 어느 나라에 생태계 문제는 內務部가 관장하고, 公害 문제는 環境廳이 관장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이런 제도는 빨리 바로 잡혀야 자연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環境人들이 團合하여, 자연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一元化의 중요성을 방대한 Report로 정리해 올릴테니, 이를 근거로 타협이 안되면 강제이라도 해주십시오.

네번째로, 學校에서의 環境教育을 義務化하도록 법제정에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의 국민학생 교과서에, 또 중·고등학생의 교과서에 자연이 무엇이고 환경오염이 무엇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끼어 있기는 합니다만, 주지하시다시피 그런 눈감고 아웅스으로는 平生教育的 측면의 環境教育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體系적으로 환경의 價値, 환경오염의 危害, 그리고 환경보호의 當爲性이 한 교과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 大學入試에도 환경 과목이 필수과목 수준으로 채택되면 더할 나위 없는 錦上添花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앞서와 같은 맥락의 권유이운데, 環境教育을

위한 成人教育場을 開設하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소생이 알기로는 전문직 분야에는 그 전문 분야의 研修場(院)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디다.

그러나, 우리 환경분야에는 일반인을 위한 그럴듯한 교육장이 없습니다. 물론 國立環境研究院이 그래도 유일한 교육장으로 活用되고는 있으나, 그곳은 환경전문가를 위한 교육장이지 환경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研修教育院은 아닙니다. 혹시 현재 環境保全協會가 운영하고 있는 수유리所有의 교육을 일반인을 위한 환경교육장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디다만, 소생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강의실이 아니라, 宿食을 하면서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말합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예산이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뜻이 분명하면 길도 분명히 있듯이 주위를 유심히 돌아보십시오.

현재의, 國立環境研究院을 좁으면 좁은대로 活用하시면, 100명 정도가 宿食을 하며, 教育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런 저런 일을 머리만 잘 굴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式으로 텨뵈면, 폐돈벌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흔히, 不勞所得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나는 나라에서, 애써 힘들게 돈보다 뜻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돈벌기 일 以前에 환경보호라는 명제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환경오염 防止施設業(體)」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시각은 오늘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어 가니까, 당연히 그런 방지시설업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外形으로는 사업이 成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位圈 안에 드는 大企業의 몇곳일 뿐 대부분의 中小企業과 영세 시설업체에서는 현상 유지는 커녕, 赤字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렇듯한 일감 하나 얻으려면, 그럴듯한 용자를 얻어야 하는데, 그 용자의 절차 서류가 까다롭고, 심의 기간도 길어 보통 실력(?)으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 期間도 길어 도무지 돈벌이와는 인연이 안된다고 합니다.

청장님, 그래서 여섯번째의 부탁이운데, 어차피 環境廳에서 이들을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으로 등록시키셨으니, 그들이 살

아갈 수 있는 길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일감도 찾아주시고, 용자의 혜택 폭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오나, 「환경관리공단」의 일 중에서 이들 중소기업체들이 團合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일곱번째로, 環境團體 및 環境言論의 活性化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民間團體가 環境廳에 등록된 團體, 안한 團體 합쳐 열 團體가 조금 넘습디다. 그리고 月刊誌, 週刊紙 등 환경언론도 열가지나 됩니다.

이 모두는 이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愛國愛族의 순수한 것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그 거룩한 뜻과는 정반대로 사회의 몰이해와,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닌 비참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 하나도 반듯한 곳이 없을 뿐더러, 직원들 봉급도 제때에 주지 못해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環境廳을 유일한 희망과 궁지로 사랑하고 아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참한 생활로 허덕이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意志 표상이랄 環境廳은 마지막 기멸 언덕이고, 마음 든든한 고향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단 한푼의 國庫補助는 커녕, 그렇듯한 用役, 하나 얻지 못하면서도, 自費로 團體를 이끌어가는 장한 모습을... 그리고 雜誌 한권, 新聞 한장 사주지 않는데도 每月, 每週 環境廳의 기관지 마냥, 環境廳의 소식, 環境廳의 지침을 열심히 弘報하고 있는 言論을...

솔직히 말씀드려, 이들 環境團體, 環境言論이 環境廳에 쏟는 사랑과 충성에 비해 環境廳이 이들에게 베푸는 자세는 너무 몰인정하고 너무 도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社會의 몰이해와 국민의 인식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環境廳마저 이렇게 외면해서야, 무슨 희망으로 사느냐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청장님, 나라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니 당연히 環境廳의 예산도 부족해, 법정 단체인 環境保全協會에만, 國庫를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고초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以外的 用役費나 事業費중 일부를 이들을 위해 조금씩 나눠줄 수는 없으십니까?

꼭 環境廳 자체에서, 環境保全協會에서 그리고 새로 環境同

友會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환경보호 事業, 弘報를 펼쳐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꾸러 나갈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環境廳이 이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國家의 意志라면, 그 意志를 떠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과 지혜보다, 여럿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즉, 많은 環境團體, 環境言論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나라의 진정한 환경보호의 깃발이라고 할 환경보호 民間團體와 「公害對策」誌 「生活環境, 産業環境, 健設環境」紙와 같은 環境言論을 적극 育成해주시지요.

우선, 團體에는 環境廳 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弘報, 教育사업을 用役 주어, 보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環境言論의 최소한의 赤字를 막아준다는 뜻에서, 廣告 넣어주기 등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앞서의 誌, 紙를 廳의 특별(?) 예산으로 수 백부씩 구입해, 전국의 支廳은 물론, 유관부처나 필요한 곳에 보내셔도 좋을 것입니다.

廳長님 기왕에 廳에서 하실수 있는 일을 말씀드렸으니 말인 데요, 그런 맥락의 여덟번째의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環境廳은 다른 部, 處, 廳과는 달리 國民을 위한 행정관서로 항상 國民의 편에서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멀고, 너무 높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멀다는 뜻은 거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國民의 편에서 서는 자세를 말하며 너무 높다는 뜻,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廳長님 環境廳은 國家의 環境을 지킨다는 책임과 함께 國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國民이 편하고 쉽게 環境廳을 방문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거리적인 면에서 「잠실」은 너무 멀습니다. 그렇다고, 모처럼 구입한 청사를 팔고, 시청이나 광화문 쪽으로 이사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을 제일 많이 다루는, 한 두어개의 局은, 國民의 편익을 위하여 시청이나 광화문 쪽으로 보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아울러, 對民行政은 되도록 모두 支廳으로 이관시키셔서,

앞으로 실시될 地自制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環境廳의 門턱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작은 예이온데, 環境廳에서만 일반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개방하십시오.

서울의 本廳은, 물론 全國의 支廳 심지어는 國立環境研究院마저, 정문에 경비실을 두어 出入하는 일반 방문객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출입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官公署가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保安上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環境廳이라면 이런 관료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改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내집 드다들 듯이 쉽게, 편리하게 전혀 간섭없이 環境廳을 찾을 수 있어야,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各局, 課의 門도 활짝 열어놓아, 보다 친절하고, 보다 자세한 對民行政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環境廳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번째로, 環境廳의 開放을 권유합니다.

즉, 현재의 강당, 도서실 등을 완전히 open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당을 환경관계 행사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도서실은 일반도서관이나 독서실 형태로 꾸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環境廳을 국민을 위한 봉사 行政官署로 느낄 것입니다.

廳長님, 以外에도 부탁드릴 말씀이 많습디만, 꼭 차서 넘치기 보다는 하나가 부족해 나중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아홉개의 문제만을 부탁드리고 권유드립니다. \*

글 중에, 결례되는 부탁이나, 추상적인 권유, 그리고 조금 거북스러운 표현이 있었다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 모두는 廳長님의 탁월하신 環境行政 능력에 거는 우리들 모든 環境人들의 바램을 짧은 글로 표현하다 보니 그리된 소생의 不德한 소치입니다.

부디, 단 하나뿐인 우리의 祖國 이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말씀하셨듯이), 한점 부끄럼이나 私心없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오며, 來來 건강하시고, 宅內 두루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4월 25일

박 창근 拜